금융

Sector Issue Brief 2025. 12. 22

금융위 업무보고 시사점 : 금융권 공적역할 강조

Check Point

-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
- 금융권 공익적 역할 강조
- 금융업권별 영향점검

| Analyst **전배승** | bsjun@ls-sec.co.kr

생산적금융 + 포용금융: 금융의 공익적 역할 강조

▶ 12/19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중계됨. 금융위는 26년 정책목표로 기존에 발표했던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재차 강조. 생산적금융과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, 지방우대금융, 금융업권별(은행/증권/보험) 역할 강조가 주된 내용. 포용금융 중 금융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서민금융 역할확대(출연금 상향, 중금리대출 확대),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등

▶ 대통령 또한 주요 발언을 통해 금융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. 구체적으로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중심 이자수취 문제인식, 포용금융 관련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확대 필요성, 금감원 감독기능 관련 금융지주 CEO 선임절차 문제지적 및 특사경 권한 강화 등을 언급. 또한 금융권의 배당성향에 대한 관심,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필요성 등의 내용도 있었음

금융업권별 영향 점검

▶ 은행지주의 경우 생산적금융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각각 80~110조원 규모계획을 기발표. 생산적금융 중 융자부분은 기존의 기업대출과 유사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그룹자체 투자분의 경우 평균 20조원(향후 5년) 규모로 위험가중치 250% 적용시 연간 보통주자본비율 28bp 내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.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 채무조정 등 관련 직접비용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정부/금융당국의 정책기조 감안시 서민금융/취약차주 관련 각종 출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. 25년에 이어 26년에도 가계대출 억제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규제 강화 가능성 또한 예상됨

▶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과 코스닥시장 역할확대 과정에서 간접적 수혜 기대 가능.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다산다사 구조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. 보험사의 경우 생산적금융 관련 장기투자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뢰금융과 관련된 헬스케어/치매 관련 사업기회 확대 추구 가능할 듯

▶ 금융권의 공적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수익극대화, 보수적 리스크관리 등 금융회사 자체적인 목표와 상출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

그림1 **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대통령 주요발언 내용 정리**

구분	소분류	내용
금융위원장 업무보고	25년 성과	- 민생지원(신용사면 286만명, 새도약기금 113만명), 주가조작 적발, 국민성장펀드 출범(150조원), 금융권 자금공급 약속 603조원=생산적금융 525.5조원(국민성장펀드 52.5조원포함)+포용금융 77.5조원
	26년 목표	- 경제회복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.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**생산적금융 + 포용적금융 + 신뢰받는 금융**
	생산적금융	- 국민성장펀드: 매년 30조원, 5년간 150조원 공급. 자금의 40% 이상을 지방에 투입. 국민참여형펀드로 조성 - 자금흐름을 부동산/수도권/대출 → 기업/지역/투자로 전환 - **은행: 기업의 생산적자금 공급자 역할** **보험: 장기투자자 역할 확대,** **증권: 모험자본 공급 책임, 코스닥시장 역할 강조**
	포용적금융	- 3~6% 저금리 서민금융 지원, 청년대출 신설, 정책금융 상환시 은행 신용대출로 연계 - **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: 중금리대출 확대,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규모 확대** - 장기연체와 추심제도 개선: 새도약기금 신설, **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**(채무조정 실적공시+포용금융 평가반영)
	신뢰금융	- 잠재리스크(가계부채, 부동산 PF) 관리, 금융소비자 보호,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책임 부과 - **사망보험금 유동화 혜택을 연금 뿐 아니라 요양/헬스케어 서비스로 확대, 치매관련 보험/신탁상품 활성화** - **AI기반의 자동적인 금리인하요구권 및 저금리 대환대출 비교서비스**
대통령 주요발언	모두말씀	- 금융위원회가 **공익적 역할**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핵심.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으로 금융제도가 발전되어야 함
	생산적금융 관련	- **금융권의 부동산 담보중심 이자수익 치중 문제인식** -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생산적금융 관련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언급
	포용적금융 관련	- **신용계층별 금융접근성 차이가 자산격차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.** 따라서 정책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 - 금융채권 소송절차 관련해 금융권에 과도한 특례적용(송달, 인지, 소멸시효 등) 문제제기 - 장기연체자에 대해 너무 가혹함. 빠른 연체정리를 통한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
	금융권 공적역할 관련	- 포용금융 시행 등과 관련해서 **금융권의 공적역할을 강조** - **금융기관은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기에 발생하는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나** **금융권이 그러한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 의문** -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규모 확대에도(6,321억원) 연간 이익에 비해서는 소소하다고 언급 (금융위원장이 신보/기보 등 각종 출연금을 합산하면 3조원 규모라고 답변)
	금감원 감독기능 관련	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외의 금감원의 조사 및 검사업무 관련 특별사법경찰 권한확대 필요성 언급 -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**은행지주 등 CEO 선임절차 관련 '이너서클' 문제 제기** (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이사회의 독립성 개선 필요성,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 필요성 언급)
	코스닥시장 관련	-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필요성 언급, 주가조작 근절 등 시장투명성 강조
	기타 발언	- **국내 금융기관의 배당성향이 어느 수준인지 대통령이 질문** (금융위원장이 30% 수준이라 답변)
부처별 토의내용	기업은행	-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임금체불 논란 발생. 정부와 협의 필요
	신용보증기금	- 만기연장/상환유예 종료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용보증 사고가 증가. 부실률은 목표수준 내에서 관리
	예금보험공사	- MG손보에 대해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관리 중(예보가 수천억원 손실부담 부담)

자료: 금융위원회 업무보고

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생산적금융 관련 금융지주 영향 추정

(단위:조원)	국민성장펀드 (5년간)	자체투자 (5년간)	합계 (5년간)	RWA증가분 (250%가중치)	펀드+투자 예상수익(10%)	보통주자본비율 (현재,'25.09)	보통주자본비율 (펀드+투자 반영)	보통주자본비율 영향(5년간,bp)	보통주자본비율 영향(연간,bp)
KB	10.0	15.0	25.0	62.5	2.5	13.83%	12.37%	-1.46%p	-0.29%p
신한	10.0	12.5	22.5	56.3	2.3	13.56%	12.23%	-1.33%p	-0.27%p
하나	10.0	10.0	20.0	50.0	2.0	13.30%	11.93%	-1.37%p	-0.27%p
우리	10.0	7.0	17.0	42.5	1.7	12.92%	11.56%	-1.36%p	-0.27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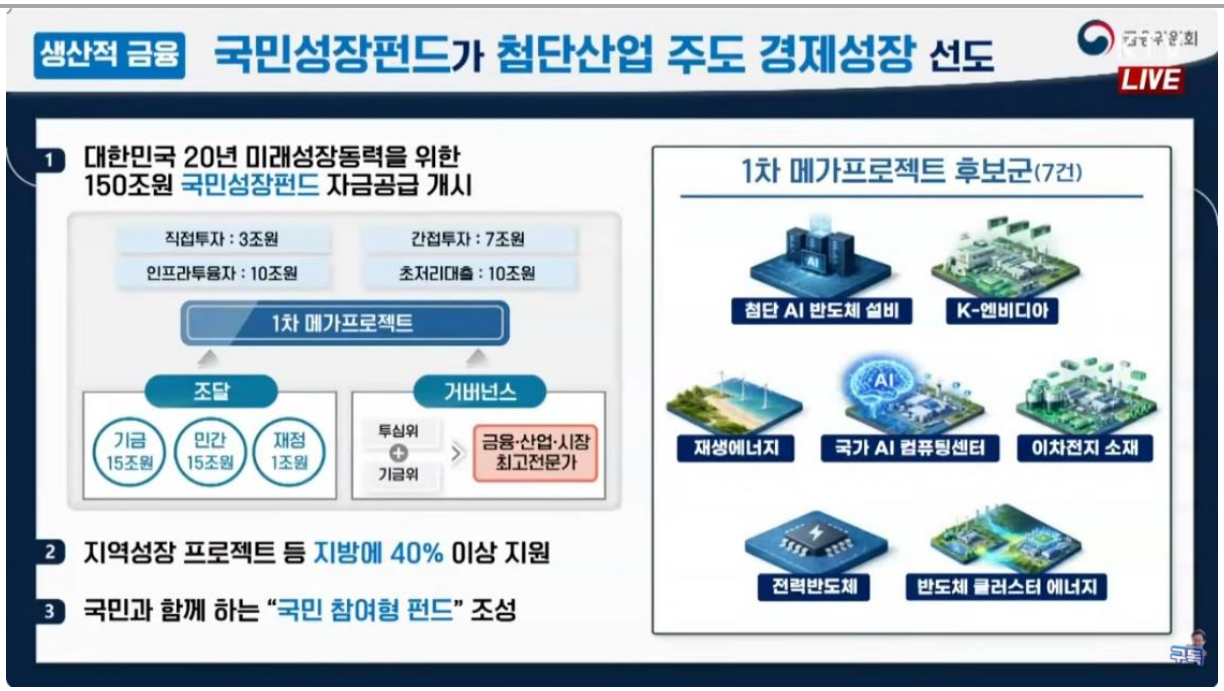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포용금융 관련 금융권 관련 내용

구분	내용
중금리대출 확대	• 은행 재원 새희망홀씨 연 3.5조원 → 연6조원('30년) •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30% → 35%('30년)
서민금융 출연확대	•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규모 4,348억원 → 6,321억원('26년) •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('27년, 정부와 공동출연)
취약차주 대출지원	• 은행권 징검다리론 공급(3,000만원 한도, 크레딧 빌드업 조치)
채무조정 관련	•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(채무조정 실적공시 및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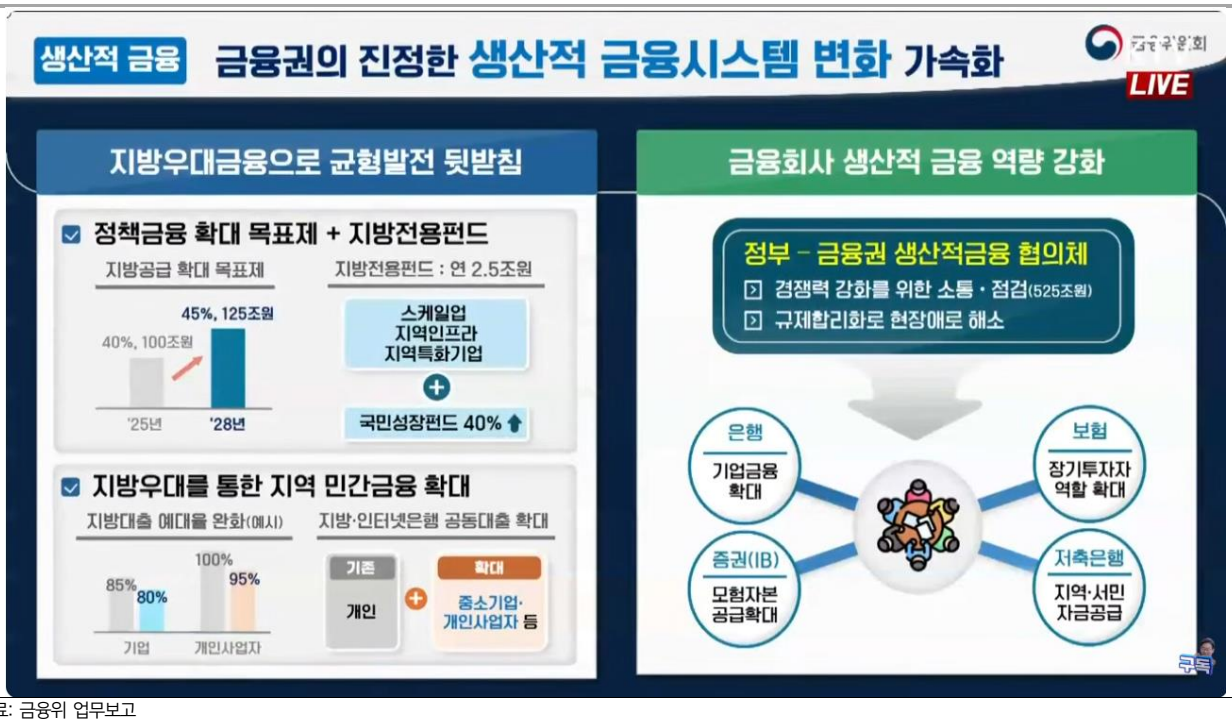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-생산적금융(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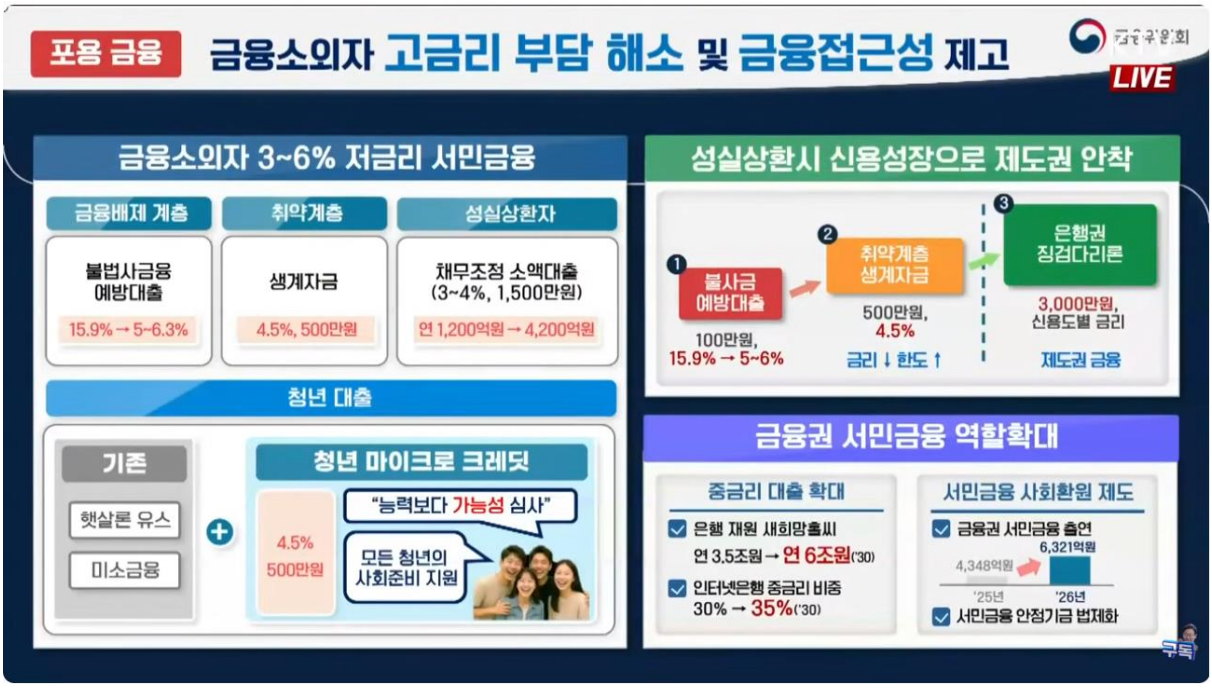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위 업무보고

그림5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-생산적금융(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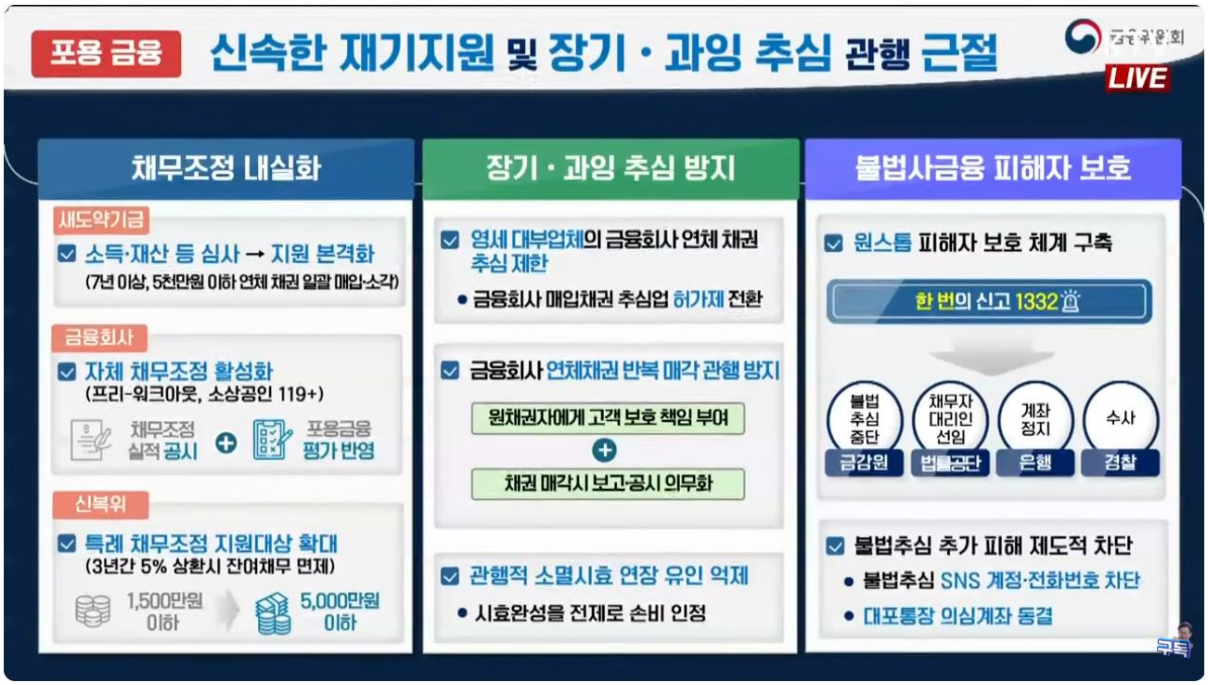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위 업무보고

그림6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-포용금융(1)



자료: 금융위 업무보고

그림7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-포용금융(2)



자료: 금융위 업무보고

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9.4% 10.6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**100.0%**	투자의견 비율은 2024. 10. 01 ~ 2025. 0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